

1위 불참 '마지막 퀸즈투어' 마지막 승자는?

누적승점 단독선두 라온퍼스트 결장
2위 위시미·3위 캄스트롱 양강구도
골든파워·라온더스퍼트 등도 '주목'

한국 경마에서 매년 실시하는 여러 시리즈 경주 중 '퀸즈투어'(Queens' tour)는 4개 경주로 구성된 3세 이상 암말 한정 레이스다. 27일 일요일, 핏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는 퀸즈투어 시리즈의 마지막 경주인 '제16회 경상남도지사배'(GⅢ)가 열린다. 경주거리 2000m, 총 상금은 4억5000만 원이다.

현재 '퀸즈투어' 누적승점 1위는 라온퍼스트다. 하지만 라온퍼스트가 13일 GⅠ 경주인 대통령배에서 암말 최초로 우승하면서 이번 경주에 불참한다. 라온퍼스트가 빠지면서 시리즈 누적승점 2위인 위시미와 3위 캄스트롱이 퀸즈투어 왕관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최우수 3세 암말이 확정된 골든파워, 라온퍼스트와 자매마인 라온더스퍼트 등 암말 강자들이 나선다.

●위시미 (서울, 5세, 한국, 레이팅95, 승률 46.2%, 복승률 84.6%)

매번 2위에 그치다가 최근 경주인 10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에서 1400m 최고기록을 경신하며 우승했다. 2위 라온더스퍼트와 무려 7마신차였다. 하지만 2000m는 경험이 없고 1800m 경



올해 최고의 암말을 가리는 '퀸즈투어'의 마지막 경주인 '제16회 경남도지사배' 우승후보들. 위시미(왼쪽)는 최근 경주인 10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에서 1400m 최고기록을 경신하며 우승했고, 중장거리에 장점이 있는 캄스트롱은 2000m 경험은 아직 없지만 1800m는 우승 1회, 3위 1회를 기록했다.



올해 최고의 암말을 가리는 '퀸즈투어'의 마지막 경주인 '제16회 경남도지사배' 우승후보들. 위시미(왼쪽)는 최근 경주인 10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에서 1400m 최고기록을 경신하며 우승했고, 중장거리에 장점이 있는 캄스트롱은 2000m 경험은 아직 없지만 1800m는 우승 1회, 3위 1회를 기록했다.

험도 2년 전 단 한 번뿐이다. 주력거리인 1400m보다 600m나 긴 이번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걸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스터파크와 트리플나인 등을 배출한 명씨수마 액툰파크의 자마이다.

●캄스트롱 (부산, 3세, 미국, 레이팅83, 승률 33.3%, 복승률 33.3%)

7월 KNN배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부마가 바이언으로 라온더퍼터와 같다. 2세마 시절에는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3세인 올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에 장점이 있다. 2000m 경험은 아직 없지만 1800m는 우승 1회, 3위 1회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경주에서 5위에 그

쳤지만 그동안 1600m, 1800m로 경주거리를 늘려오다가 갑자기 1200m 단거리로 전환한 영향으로 보인다.

●골든파워 (부산, 3세, 한국, 레이팅72, 승률 41.7%, 복승률 41.7%)

'루나Stakes'에서 라온더스퍼트와 참좋은친구를 제치고 우승하는 이번을 일으키더니 '트리플티아라' 3개 경주를 모두 우승하며 올해 최우수 3세 암말이 되었다. '트리플티아라' 마지막 경주인 6월 '경기도지사배'에서는 라온더스퍼트를 4마신차로 여유롭게 이겼다. 하지만 트리플티아라 이후 출전한 퀸즈투어에서 4세, 5세마들과 겨루면서는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 경주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에

서도 8위에 그쳤다.

●라온더스퍼트 (서울, 3세, 한국, 레이팅 86, 승률 45.5%, 복승률 81.8%)

부마가 머스킷맨으로 올해 스테이아 시리즈 우승마인 위너스맨과 대통령배 우승마인 라온퍼스트의 동생이다. 단거리와 장거리를 가리지 않고 모든 거리를 끌고루 잘 소화하는 올라운더다. 아직 3세 밖에 안됐지만 성적으로 검증된 주행능력 덕에 많은 경마팬의 기대를 받고 있다. '트리플티아라'에서는 골든파워에게 아쉽게 패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에서는 위시미에게 7마신차로 패해 이번 경주에서 설욕할 상대가 돌아나 된다.

●버닝파티 (부산, 4세, 한국(포), 레이팅 62, 승률 25.0%, 복승률 37.5%)

올해 5월 20일 경주를 마지막으로 6개월의 공백이 있다. 이번 경주는 복귀 후 첫 경주이자 첫 대상경주다. 데뷔 이후 반년 넘게 부진했지만 김혜선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경주거리를 늘린 후 완전히 달린 모습을 보여주었다. 1800m를 주력으로 달리며, 4월 'TCK트로피' 특별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경남도지사배'도 김혜선 기수와 함께 출전한다. 출전마들 중에는 장거리 경험이 압도적으로 많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에서 비상대피훈련을 점검중인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오른쪽).

마사회,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한국마사회는 17일 서울경마장에서 유관기관 합동 화재대피훈련 및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정기환 마사회장의 주관 하에 유관기관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함께 하는 국민참여형 훈련으로 진행했다. 한국마사회는 안전한국훈련 기간(14~25일) 중 많은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체험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훈련에서 말 전염병 대응훈련, 재난대피훈련, 국민참여형 소방 및 응급조치 실습, 재난상황가정 도상훈련 등을 시행했다.

재활승마 국제학술대회 오늘부터 양일간 진행

한국마사회가 후원하는 '2022 재활승마 국제학술대회'가 25일과 26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열린다. 재활승마 프로그램의 치유 효과와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국내외 해외에서 모인 약 100여명의 재활승마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첫 날은 '재활승마 참여와 재활승마장 선택 동인 연구'에 대하여 박지은 전주기전대 교수가 발표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 발표를 한다. 둘째 날은 '재활승마 활동이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등 6개 세션이 열린다.

마사회, 참가 대상 확대 '창업경진대회' 개최

한국마사회는 말과 관련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말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총 상금 2100만 원 규모이며 상금 500만 원과 한국마사회 장상이 주어지는 대상을 포함해 19인(또는 팀)에게 수여한다. 올해는 대학생은 물론 일반인까지 참가 대상을 확대했다. 스마트농업에 말 축종이 편입됨에 따라 기술창업 분야를 신설했다. 관련 스마트 장비 정부등록 성공 시 250만 원을 별도 지원하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총 상금을 2100만 원으로 늘렸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아낌없이 나누는 마사회 사회공헌 활발

나무심기·플로깅 등 봉사 구슬땀
일자리 지원 등 취약층 돕기 앞장
사회공익 힐링승마 대상도 확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11월을 '사회공헌의 달'이라고 해도 될 만큼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ESG경영을 연계한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마공원이 문을 닫기 전까지 한국마사회는 경마시행으로 매년 1조 5000억 원의 제세 납부, 1000억 원 이상의

축산발전기금 출연, 130억 원 이상의 기부금 집행 등 대표 사회공헌기업으로서 사회 환원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 하지만 팬데믹 사태로 인해 지난 2년 간 사상 초유의 적자를 기록하며 사회적 기여 규모도 줄었다.

올해는 경마가 전면 재개되면서 사회공헌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마사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에 초점을 맞춘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새롭게 선보였다.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 '마사회엔젤스'는 1인 1반려나 무 입양을 통해 키운 나무들을 지역아동센

터 및 노인복지센터 등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11월에는 강원 산불 피해지역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 조성에 손을 보았다. 4월에는 '지구의 날'을 맞아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도 진행했다.

3월에는 경북·강원 산불 피해를 돕는 특별경주를 개최해 경마유관단체와 함께 총 1억2000만 원의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고, 여름에는 홍수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사업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저소득층, 취약여르신, 아동, 장애인, 미혼모 시설에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 더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리치로나 일자리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가구 급증과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새롭게 마련했다. 유기동물 인식 개선 및 입양 독려를 위해 11일부터 핏츠런파크 서울 말박물관에서 유기동물 입양 홍보 전시회인 '날 데려가시게'를 진행하고 있다.

마사회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인 사회공익 힐링승마 사업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교정직, 방역직 공무원 등 사회공익 직군 대상에서 범위를 자살유가족 및 범죄피해자까지 넓혔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아직 보이지 않는 곳에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많다"며 "전 임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에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우와!!! 이게 뭐니까???

힘센 파워툴 25V 파워해머드릴

파격할인가 158,000원

리튬이온 배터리2개

전문가 작업용 힘이 좋습니다

이런분이 꼭 필요합니다

- 가정에서 간단한 수리를 많이 하시는 분
- 전문적인 인테리어 하시는 분
-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
- 전자, 전기 수리 전문으로 하시는 분

배터리 1개 추가시 178,000원

공장직영총판 010-2471-8245, 070-8623-8245

드디어 출시!!! 2022 신제품

챔피언충전식 21볼트 힘 전동가위

배터리 2개 충전으로 8시간 작업가능

인건비 5배 이상 절약

레이저온 배터리2개

전판매가 480,000원

이런분이 꼭 필요합니다

- 과수로 허전서 전자 인건비 절약하고 싶은 분
- 전자기기 특종작을 재작을 많이 하시는 분

【동호정밀 챔피언 전동가위】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대리운전 A to Z’

이 책 한 권이면 대리운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준 ‘대리운전’

대리운전으로 월 500만 원 벌기

윤정훈 지음 / 신국판 / 값 16,500원

직장인도 퇴근 후 월 200만 원만 벌자!

내 인생, 대리운전으로 생명의 불씨를 살렸다

대리운전으로 희망을 찾고 다시 일어서는 법!

자유와 행복의 길을 걷고 있는 대리운전 인생이야기

멘스로 창업 2년 만에 제인사업을 전개할 만큼 회사를 급성장시켰지만,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업에 열거주 실패하면서 좌절과 우울의 수렁에 빠졌다. 심장마비로 목숨도 잃을 뻔했다. 하지만 대리운전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처음엔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했지만, 대리운전은 내 삶에 있어서 감사할 일이었다. 고난과 역경의 생활에서 벗어나 지금은 자유와 행복의 길을 걷고 있는 '대리운전 인생이야기.'

월수입 5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이야기와 노하우를 담은 책!

대리운전 경험과 실수담, 에피소드 등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종합적인 노하우를 담은 이 책은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을 비롯해 건강관리, 돈 관리, 전동휠 선택법, 기본 장비, 손님 대처법, 사고방지 등 초보 대리기사 가 알아야 할 모든 사항을 꼼꼼히 소개했다.

도서주문 도서출판 **눈 북갤러리** 전화 : 02)761-7005(대) / 팩스 : 02)761-7995 * 교보문고 인터넷, 예스24,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및 교보, 영풍 등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